



**중기중앙회-저고위, 저출생 대응·중기 지원 논의**  
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저출생 대응 현안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BNK부산은행-주금공,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BNK부산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은행장(왼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세븐일레븐, 점포 '식품안전심업소' 인증 확대**  
세븐일레븐은 지난 12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심업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븐일레븐은 연내 지정 점포 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한상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12일 '제24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약품 광고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임경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콜마비엔에이치, 지속가능경영·자율준수 선언식**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지속가능경영 및 자율준수 선언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승화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왼쪽 네 번째)와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

# 대한항공, 퇴역 항공기 새 단장... "미래세대 영감 줄 것"

美 과학센터에 보잉 747 기증  
지역사회 항공 교육공간 활용

"미래의 조종사, 엔지니어,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입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에 항공 교육 공간을 환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항공기를 기증했다. 이는 미래 세대는 물론 전 연령층이 항공기에 대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에 선지될 보잉 747 퇴역 항공기 전시물을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항공기는 보잉 747-400 기종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1만3842회, 8만6095시간을 비행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서 진행된 항공기 공개 기념식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는 이 항공기의 1·2층 기내, 벨리캐고, 랜딩 기어를 포함한 항공기 바퀴 부분을 모두 활용해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은 2023년 대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에 대한항공이 기증한 보잉 747-400(HL7489) 항공기. /대한항공

한항공의 후원을 계기로 마련됐고 전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반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식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스앤젤레스는 대한항공에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며 "젊은이들에게 비행에 숨겨진 과학과 상상력을 보여주고

미래의 조종사, 엔지니어,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은 미래 세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삼양사, 반도체 공급망·소재 경쟁력 강화

이원중 팀장, 과학의 날 장관 표창

삼양사는 화학연구소 전자재료 프로그램(Program) 이원중 팀장(사진)이 지난 12일 열린 '2026년도 과학의 날 과학기술진흥유공 부총리 표창 전수식'에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팀장은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이 독점해 온 옥심계 광개시제와 비이온성 광산발생제 국산화 연구를 주도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소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팀장은 2012년부터 5년간 한국 화학연구원과 협력해 옥심계 광개시



제를 공동 개발했다. 2018년부터는 3년간 자체 연구를 통해 초고감도 옥심계 광개시제와 비이온성 광산발생제 개발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옥심계 광개시제와 광산발생제 신규 구조 등에 대한 국내외 특허 37건 이상을 등록했고 감광성 핵심 소재 6종의 양산화에도 성공했다.

이 팀장은 "삼양사 화학연구소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국산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지난 12일 진행된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르노코리아 상회정 대내/외전략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장관표창을 수상한 남형훈 디렉터(왼쪽 첫번째), 정현무 디렉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 르노코리아 임직원, 대통령·장관 표창

### 자동차의 날 기념식

자동차 산업발전 공로 인정

르노코리아 임직원들이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르노코리아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12일 진행된 '제23회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상회정 대내/외전략본부장이 대통령표창을, 남형훈 디렉터와 정현무 디렉터가 각각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상 본부장은 지난해 '르노 누벨 바

그' 전략 아래 사명 변경과 신규 로장주 앰블럼 도입, '르노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등을 총괄했다. 또 하이브리드 신차 개발 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의 대외 전략 수립을 맡아 친환경차 라인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으며, 미래차 시험개발센터 설립과 폴스타4·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의 부산공장 유치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장관표창을 받은 남형훈 디렉터는 르노코리아 주요 차량 개발 프로젝트를 이끈 점을 인정받았다. 정현무 디렉터는 부산공장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표창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 공영홈쇼핑,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 개소

중소·소상공인 지원 체계 강화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를 열었다.

13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긴급 판로지원 119센터는 유통사 폐점, 정산 중단 등의 거래쳐 문제를 비롯해 재난·재해 등으로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 빠르게 돕기 위

해 마련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은 고유가 피해 기업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필수 부품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5월 말 개설되는 '고유가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상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10% 적립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기관간 전보 △통신정책관 남석

### 부음

▲김아림씨 별세, 김의태(전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씨 자녀상 = 12일 오후 2시

16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02-3410-3151

▲김순덕씨 별세, 윤재홍(전뉴스통신진흥회 이사·전 KBS 제주방송총국장)씨 부인상, 윤형배(기아자동차 과장)·윤형일(개인사업)씨 모친상, 강계영씨 시모상 = 12일 오전 10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5일. 02-2227-7500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후원

두산연강재단이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후원에 나서며 시각예술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두산연강재단은 11월 22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에서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제61회 국제미술전' 한국관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관은 '해방공간'을 주제로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건과 역사적 전환기를 조명한다.

두산연강재단은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한국관 후원에 참여했다. 특히 재단의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두산아트랩'을 거친 노혜리 작가와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슈퍼바이저로 활동 중인 최빛나 예술감독이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면서 후원의 의미를 더했다.

/원관희 기자